

# 국내 소규모 창업의 현황과 시사점

### 요약

최근 무인 창업, 1인 창업 등 소규모 창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본 원고에서는 창업기업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소규모 창업기업은 그 외 창업기업과는 업종 및 업태, 창업가의 특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창업 준비와 준비 단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소규모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 생태계 내에서 창업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창업가 개인의 성장과 창업 생태계 성장의 중간 단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전환 등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소규모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1. 머리말

최근의 소규모 창업에 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창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부터 저성장과 경제의 불확실성과 같은 외부적인 상황까지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창업기업의 주요한 등장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 등으로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던 많은 영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 기회의 증가로 소형 기업들의 역할이 부각된 것이다. 또한 기업 운영의 모든 기능을 기업 내부에서 할 필요 없이 다양한 기술 및 외부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소규모 창업기업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의 변화나 디지털 전환 같은 대전환 조류 등 외부적인 경영 여건 변화로 인해 새로운 여건에 유연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의 창업을 살펴보면 무점포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sup>1)</sup> 이들 분야는 혁신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창업기업의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벤처·창업기업이 미래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소규모 창업의 잠재적인 역할과 사회적 관심에 비해 소규모 창업에 관한 현황 파악과 정책적인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소규모 창업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안소현(2022), "코로나19 이후 주요 업종별 창업 추이의 변화와 시사점", 「KIET 산업경제」, 10월.

## 2. 소규모 창업의 역할

소규모 창업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 생태계, 더 나아가서는 전체 경제 내에서의 역할을 살펴본다. 먼저 소규모 창업기업은 모든 창업기업이 거치는 단계의 역할을 한다. 창업기업은 창업 이후 기업 성장 단계를 거치며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기 마련이다. 어떤 기업도 처음부터 큰 규모일 수 없고 시작하는

시점에는 규모가 작다. 특히 창업기업의 시작은 창업가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기업이라면 개념적으로는 1인 창업의 상태를 언젠든 한 번은 지나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창업기업이 일정한 단계에 따라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의도적으로 작은 규모로 머무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규모 창업기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소규모 창업기업의 증가가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업기업의 증가로 인해 그 기업이 속한 산업 혹은 창업 생태계 전체가 성장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분야에 소규모 창업기업이 증가하며 신산업이나 신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규모 창업은 창업가 개인의 성장에도 의미가 있다. 창업은 경제활동의 한 가지 방법으로 노동 공급의 입장에서는 취업의 대안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청년이나 커리어 상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집단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때 취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소

규모 창업을 택하는 경우와 창업 경험 축적을 위해 소규모 창업을 시도해 보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특히 소규모 창업을 통해 창업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 혹은 커리어 확장 가능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더불어 2020년 기준 창업 경험이 있는 창업기업은 36.2%를 차지하며<sup>2)</sup> 재창업 기업의 창업 생존율이 창업기업의 두 배에 달한다는 기존 연구결과<sup>3)</sup>를 고려할 때, 소규모 창업은 창업가 개인의 성장 및 지식과 노하우의 축적을 통한 창업 성공의 발판으로서 잠재력을 지닌다.

2)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2월.

3) 김진철(2021), "국내외 재창업 지원 정책 비교 및 시사점", 「KOSI 중소기업 포커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3. 소규모 창업의 현황 및 특성

본 원고에서는 소규모 창업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의 미시자료를 활용한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기업의 창업 준비, 창업실행, 창업 성장 등 다양한 창업 활동 전반에 관한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sup>4)</sup>

#### (1) 소규모 창업의 정의

소규모 창업기업은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고

용, 자본이나 매출 등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업종이나 운영상의 특징에 따라 상대적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소규모 창업기업을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와 통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특성을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통계에서는 고용주를 제외한 고용인의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자영업자 정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으로

4) 중소벤처기업부(2019), "창업기업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12월.

〈표 1〉 창업기업 표본의 규모별 분포

단위: 개사,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					
	0인	1~4인	5~9인	10~99인	100~300인	301인 이상
기업 수	2,207	2,706	1,489	1,547	45	6
비중	27.59	33.83	18.61	19.34	0.56	0.0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미시자료, MDIS.

고용원 여부에 따라 여러 특성을 비교하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sup>5)</sup> 또한 소규모 창업의 다른 예인 1인 창조기업 역시 업종과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정의하는데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만의 특성이 존재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sup>6)</sup> 실태조사의 종사자 관련 문항을 활용하여 전

체 창업기업 표본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자 수가 0인 기업의 비중이 27.59%에 달해 창업기업 가운데 고용주(대표자)를 제외한 고용인이 없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고).

## (2) 소규모 창업의 업종별 분포

소규모 창업기업은 업종별 분포에서 여타 창업기업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5)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4월.

6)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2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3월.

〈표 2〉 소규모 창업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개사

업종	전체	소규모 창업 여부	
		소규모	그 외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70 (2.13)	52 (2.36)	118 (2.04)
광업(05~08)	95 (1.19)	35 (1.59)	60 (1.04)
제조업(10~34)	2,785 (34.81)	538 (24.38)	2,247 (38.7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75 (0.94)	36 (1.63)	39 (0.6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175 (2.19)	28 (1.27)	147 (2.54)
건설업(41~42)	376 (4.7)	38 (1.72)	338 (5.83)

(계속)

업종	전체	소규모 창업 여부	
		소규모	그 외
도매 및 소매업(45~47)	825 (10.31)	270 (12.23)	555 (9.58)
운수 및 창고업(49~52)	403 (5.04)	180 (8.16)	223 (3.85)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47 (4.34)	191 (8.65)	156 (2.69)
정보통신업(58~63)	539 (6.74)	102 (4.62)	437 (7.54)
금융 및 보험업(64~66)	314 (3.92)	102 (4.62)	212 (3.66)
부동산업(68)	229 (2.86)	116 (5.26)	113 (1.9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459 (5.74)	78 (3.53)	381 (6.5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363 (4.54)	70 (3.17)	293 (5.06)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47 (1.84)	63 (2.85)	84 (1.45)
교육 서비스업(85)	215 (2.69)	6 (0.27)	209 (3.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222 (2.77)	149 (6.75)	73 (1.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261 (3.26)	153 (6.93)	108 (1.8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5~96)	8,000 (100.00)	2,207 (100.00)	5,793 (10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미시자료, MDIS.

주: ( )안은 유형별 창업기업 가운데 각 업종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창업기업은 상대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창업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소규모 창업기업 가운데 제조업 업종의 비율은 24.38%로 여타 창업기업의 해당 비율은 38.7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소규모 창업의 운영 현황

소규모 창업기업은 기업의 운영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창업기업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매출에서 B2C(소비자 판매)의 비중이 그 외 창업기업보다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입지에서도 일반 주택지역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는데 이는 매출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영업 방식에서 직접 영업의 비율이

〈표 3〉 소규모 창업기업의 운영 현황

단위: 개사

		전체	소규모 창업 여부	
			소규모	그 외
사업장 입지	대학, 연구기관	133 (1.66)	27 (1.22)	106 (1.83)
	산업단지	1,178 (14.73)	181 (8.2)	997 (17.21)
	일반 상업 지역	3,496 (43.71)	893 (40.48)	2,603 (44.94)
	일반 주택 지역	1,945 (24.32)	712 (32.28)	1,233 (21.29)
	기타 지역	1,246 (15.58)	393 (17.82)	853 (14.73)
영업 방식	직접 영업	7,263 (90.79)	1,906 (86.36)	5,357 (92.47)
	위탁 영업	112 (1.4)	27 (1.22)	85 (1.47)
	직접, 위탁 병행	625 (7.81)	274 (12.42)	351 (6.0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미시자료, MDIS.

주: ( )안은 유형별 창업기업 가운데 각 항목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4〉 소규모 창업기업의 매출액 판로별 비중

단위: %

판로	전체	소규모 창업 여부	
		소규모	그 외
대기업, 중견기업	7.41	4.16	8.65
중소기업	33.77	24.04	37.48
B2C(소비자)	55.06	69.44	49.58
B2G(정부 및 공공기관)	3.77	2.37	4.3
해외 수출	2.09	0.72	2.6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미시자료, MDIS.

주: 평균적인 비중이며 각 행의 합은 100이 아님.

상대적으로 낮으며 위탁 영업을 병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아 소규모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상 영업과 판로에 관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4) 소규모 창업의 창업자 특성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자는 그 특성에서 그 외 창업기업의 창업자와 구별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그 외 창업기업의 창업자에 비해 높은 편이며, 연령대 분포에서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자 가운데 20~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시니어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소규모 창업에 진입하는 창업자들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자 가운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창업자의 비율이 전체 창업기업의 해당 비율보다 낮다. 이

러한 경향은 소규모 창업기업의 업종별 분포 및 주요 업종의 특성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창업기업 창업자의 창업 직전 취업 근무 여부를 살펴보면 창업 이전 미취업 상태의 비율이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미취업 상태의 유형 가운데에서도 전업주부와 기타의 비율이 높아 소규모 창업에 진입하는 창업가의 특성이 그 외 창업기업 창업가와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자 특성

단위: 개사

		전체	소규모 창업 여부	
			소규모	그 외
성별	남성	6,028 (75.35)	1,465 (66.38)	4,563 (78.77)
	여성	1,972 (24.65)	742 (33.62)	1,230 (21.23)
연령	20대 이하	155 (1.94)	74 (3.35)	81 (1.4)
	30대	1,154 (14.43)	363 (16.45)	791 (13.65)
	40대	2,650 (33.13)	657 (29.77)	1,993 (34.4)
	50대	2,796 (34.95)	743 (33.67)	2,053 (35.44)
	60대 이상	1,245 (15.56)	370 (16.76)	875 (15.1)
학력	중졸 이하	551 (6.89)	240 (10.87)	311 (5.37)
	고졸	2,571 (32.14)	813 (36.84)	1,758 (30.35)
	전문대졸	688 (8.6)	190 (8.61)	498 (8.6)
	대졸	3,577 (44.71)	850 (38.51)	2,727 (47.07)
	대학원졸(석사)	481 (6.01)	100 (4.53)	381 (6.58)
	대학원졸(박사)	132 (1.65)	14 (0.63)	118 (2.0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미시자료, MDIS.

주: ( )안은 유형별 창업기업 가운데 각 항목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6〉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 직전 취업 근무 여부

단위: 개사

		전체	소규모 창업 여부	
			소규모	그 외
취업 상태		5,658 (70.72)	1,460 (66.15)	4,198 (72.47)
미취업 상태		2,342 (29.27)	747 (33.85)	1,595 (27.53)
미취업 상태 유형	고등학생 이하	4 (0.05)	2 (0.09)	2 (0.03)
미취업 상태 유형	대학생	26 (0.33)	7 (0.32)	19 (0.33)
	대학원생	8 (0.10)	3 (0.14)	5 (0.09)
	전업주부	462 (5.78)	177 (8.02)	285 (4.92)
	기타(취업 준비, 휴직, 무직 등)	1,842 (23.02)	558 (25.28)	1,284 (22.1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미시자료, MDIS.

주: ( )안은 유형별 창업기업 가운데 각 항목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5) 소규모 창업의 창업 준비 및 창업 당시 어려움

소규모 창업기업은 창업 준비 및 동기, 창업 당시의 어려움이 그 외 기업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소규모 창업기업은 그 외 기업에 비해 창업 동기에서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라고 답한 비중이 높아 Hurst and Pugsley(2011)<sup>7)</sup>가 논의한 비경제적 보상(Non-pecuniary benefit)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취업난 및 직장 전망이 불투명해서’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라고 대답한 생계형 창업 동기를 가진 비율도 높아 창업 동기에서 소규모 창업 내에서도 편차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소규모 창업기업은 창업 준비하는 과정에 그 외 기업과 차이가 있는데 먼저 창업 아이디어, 아이디어의 출처에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라고 답한 비율이 그 외 창업기업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높아 외부에서 기술 이전이나 협업을 통한 아이디어의 발굴 비중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창업팀 구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소규모 창업기업의 경우에 창업팀을 구성하여 창업을 준비한 비율이 13.91%로 그 외 창업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창업 교육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창업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6.09%로 그 외 기업에 비해 높다. 이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외부 협력이나 창업팀 등의 도움을 적게 받은 소규모 창업기업이 창업 준비 단계에서 창업에 대한

7) Hurst and Pugsley(2011), "What Do Small Businesses Do?",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1 (2):73 - 118.

〈표 7〉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 동기

단위: 개사

창업 동기	전체	소규모 창업 여부	
		소규모	그 외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하여	3,265 (40.81)	822 (37.25)	2,443 (42.17)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1,729 (21.61)	543 (24.6)	1,186 (20.47)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2,031 (25.39)	555 (25.15)	1,476 (25.48)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려고	69 (0.86)	19 (0.86)	50 (0.86)
취업난 및 직장 전망이 불투명해서	205 (2.56)	65 (2.95)	140 (2.42)
주변 지인의 창업 성공 사례가 있어서	36 (0.45)	11 (0.5)	25 (0.43)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창업에 유리해서	169 (2.11)	47 (2.13)	122 (2.11)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49 (0.61)	17 (0.77)	32 (0.55)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387 (4.84)	123 (5.57)	264 (4.56)
기타	60 (0.75)	5 (0.23)	55 (0.9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미시자료, MDIS.

주: ( )안은 유형별 창업기업 가운데 각 항목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지식이나 경험 부족과 관련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 가능성을 보여준다.

으며 이를 창업 교육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을 위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창업 당시의

〈표 8〉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 준비

단위: 개사

		전체	소규모 창업 여부	
			소규모	그 외
창업팀	창업팀 미구성	6,772 (84.65)	81,900 (86.09)	4,872 (84.10)
	창업팀 구성	1,228 (15.35)	307 (13.91)	921 (15.90)
창업 교육	경험 있음	1,160 (14.50)	355 (16.09)	805 (13.90)
	경험 없음	6,840 (85.50)	1,852 (83.91)	4,988 (86.10)

(계속)

		전체	소규모 창업 여부	
			소규모	그 외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 출처	기술 이전	941 (11.76)	188 (8.52)	753 (13)
	아이디어 보유자와 함께 참여	338 (4.22)	88 (3.99)	250 (4.32)
	아이디어 교류, 협업을 통한 창업아이템 발굴	231 (2.89)	63 (2.85)	168 (2.9)
	본인만의 아이디어	6,490 (81.13)	1,868 (84.64)	4,622 (79.7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미시자료, MDIS.

주: ( )안은 유형별 창업기업 가운데 각 항목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어려움을 묻는 설문을 살펴보면 소규모 창업기 정보 부족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업이 다른 창업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창 있다. 소규모 창업기업이 창업자금 확보에 따르 업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한 창업 자체에 대한 는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은 소규모

〈표 9〉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 당시 어려움

단위: 개사

창업 당시 어려움	전체	소규모 창업 여부	
		소규모	그 외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의 부재	383 (4.79)	120 (5.44)	263 (4.54)
창업자금 확보에 대해 예상되는 어려움	4,889 (61.11)	1,296 (58.72)	3,593 (62.02)
창업에 대한 전반적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	956 (11.95)	295 (13.37)	661 (11.41)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917 (11.46)	261 (11.83)	656 (11.32)
창업자(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73 (0.91)	26 (1.18)	47 (0.81)
창업 준비부터 성공하기까지의 경제활동 (생계유지) 문제	367 (4.59)	114 (5.17)	253 (4.37)
기존 직업활동(휴·겸직, 휴학, 학업 병행 등)의 제한	42 (0.53)	8 (0.36)	34 (0.59)
지인(부모, 친척, 친구, 선후배)의 만류	60 (0.75)	12 (0.54)	48 (0.83)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213 (2.66)	51 (2.31)	162 (2.8)
기타	100 (1.25)	24 (1.09)	76 (1.3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20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미시자료, MDIS.

주: ( )안은 유형별 창업기업 가운데 각 항목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창업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업종이나 근로자가 없이 운영하는 정의상 창업자금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원고에서 활용한 통계는 횡단면 자료로서 소규모 창업기업의 성장을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만 전체 창업기업 가운데 차지

하는 비중이 27%로 적지 않으며 창업 직전 미취업 상태인 창업자의 비율이 높고 여성, 청년, 시니어 층의 비율이 높은 사실을 보았을 때, 창업자 개인의 경험이나 노하우 축적의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결론 및 시사점

본 원고에서는 창업기업실태조사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소규모 창업을 정의하고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원고에서의 소규모 창업기업은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없는 창업기업을 의미하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창업기업은 상대적으로 진입이 쉽고 초기 비용이 적은 업종에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소규모 창업기업의 운영은 그 외 창업기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업장 입지에서 소규모 창업기업은 일반적인 사업 입지보다 주택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소규모 창업기업의 매출 구조가 B2C(소비자 판매)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과 연관이 깊다. 셋째, 소규모 창업기업은 여성, 20~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시니어층의 비중이 높으며 창업 직전 미취업 상태였던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창업기업은 창업 동기에서 비금전적 보상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생계형 창업 동기를 가진 소규모 창업기업 역시 존재하여 그 편차가 크다.

소규모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

소규모 창업기업이 그 외 창업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창업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소규모 창업기업에 관한 지원은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피스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지원이 많았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운영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소규모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크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소규모 창업기업, 혹은 1인 기업의 경우에는 기반을 두고 있는 소속집단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가 모두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멘토 역할이나 노하우 전수 등의 역할을 해 줄 수평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판로 등 운영상 필요한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할 수 있다. 창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통해 네트워킹과 지식의 환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등으로 달라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

은 창업기업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발견부터 기업의 운영, 성장까지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소규모 창업기업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소규모 창업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소규모 창업은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창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창업 경험의 축적을 통한 창업가 개인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규모 창업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소규모 창업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안소현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sohyunan@kiet.re.kr / 044-287-3088

「경제위기가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1)

「벤처기업 성과요인 분석: 자금조달 유형을 중심으로」(2020)